

LG디스플레이, 영업손실 4115억원

1/4분기 매출 3조6664억원으로 감소 ... 순이익도 마이너스 2550억원

LG디스플레이는 경기침체와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2009년 1/4분기 매출 3조6664억원, 영업손실 4115억원을 기록했다고 4월16일 발표했다.

1/4분기 매출액은 2008년 4/4분기 4조1556억원 대비 12%, 2008년 1/4분기 4조356억원 대비 9% 감소했다.

특히, 영업손실은 LCD 평균가격이 전분기대비 12% 하락한 데 따른 영향으로 2008년 4/4분기 마이너스 2884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. 1년 전인 2008년 1/4분기에는 881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다.

당기순이익은 2550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2008년 4/4분기 마이너스 6839억원보다는 손실규모가 줄었다. 1/4분기 EBITDA(세전순이익)는 1444억원이었다.

LG디스플레이는 “전통적인 비수기인 1/4분기에 2008년 4/4분기 수준의 출하량을 달성했으나, 4/4분기 말에 형성된 낮은 LCD 가격 때문에 수익성 제고로 연결하지는 못했다”며 “하지만, 최근 일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고객 주문량이 증가함에 따라 2/4분기에는 영업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LG디스플레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/4분기에 고객기반과 고객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평균 가동률을 약 93% 수준으로 끌어올렸다.

특히, 불황기에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대해 주목된다.

대형 LCD 전체 출하면적 점유율이 27%로 전년동기대비 7%p 상승했고, TV용 패널도 28%로 8%p 높아져 1위로 부상했다.

한편, LG디스플레이의 1/4분기 LCD 출하량(면적기준)은 전분기대비 3% 감소에 그쳤다.

매출액 기준 판매비중은 TV용 LCD 패널 56%, 모니터용 패널 23%, 노트북PC용 패널 16%, 모바일용 및 기타 패널 5%를 나타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4/16>